

# ‘걸음’을 통해 살펴본 미학적 탐구

### 16일까지 빛고을 아트 스페이스 ‘지금, 당신의 걸음’ 전시 진행



‘지금, 당신의 걸음’ 전시회의 모습.

현대인의 삶은 ‘걸음’을 통해 이뤄진다. 걸음은 도시에 흔적을 남기고 경험의 주체가 된다. ‘걸음’을 통해 미학적 탐구를 시도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 8명이 모여 개인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걸음을 예술적으로 연구한 과정이다.

‘지금, 당신의 걸음은’ 전시회가 오는 16일까지 광주 남구 빛고을 아트 스페이스 2층에서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시회는 의사, 영상전문가, 패션디자이너, 건축가, 예술가 등 8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에서 시민 걸음을 탐구한 내용을 아카이브로 보여준다.

특히 아토그래피(예술적 형식을 활용

하지만 결과물이 아닌 삶의 통합, 협력적 실천, 지속적 연구 과정이 강조되는 연구방법론) 걸음에 대해 집중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나와 다른 타인들과 교류의 장을 열고자 한다. 전시내용은 걸음을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걸음의 흐름을 선형 또는 발 무늬 시트로 제작해 바닥에 붙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한다.

걸음 연구에 참여한 오주현 모임장(예술약방 대표)은 목적과 수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본화된 바쁜 걸음에 집중했다. 선을 따라 안에서 밖으로 걷는 작품인 오 모임장의 ‘안에서 밖으로’는 걸음을 통해 나 자신이 온전한 존재감으로 연결됨을 알아차리게 한다.

걸음 연구에 참여한 윤혜정 씨는 걸음을 ‘움직이는 변주곡’이라 정의했다. 윤씨는 영상 형태의 작품 ‘걷기 변주곡’을 통해 춤과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리듬의 요소를 걸음에서 찾아냈다.

걸음 연구에 참여한 의사 출신의 정다

운 씨는 ‘의도된 걷기’에 집중했다. 정씨는 걸음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걷고, 무엇이 사람들을 걷게 하고, 무엇을 만나기 위해 걷는지 물음을 던진다. 정씨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고혈압 환자에게 걷기 처방을 내릴 때 더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오주현 예술약방 대표는 “광주 시민들의 걸음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광주 시민들의 걸음을 탐구하는 것이 이번 모임의 목표였다. 사람들의 걷는 모습은 그 도시의 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연구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연구 과정 자체에 포커스를 뒀다. 사람들이 전시를 보고 걸음에 대한 예술적 영감을 많이 얻어가는 과정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8명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걸음 연구는 광주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창의예술교육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 연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3개년 사업이다.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시민행동을 예술프로젝트로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시민걸음 탐구생활 △광주를 놀이터로 △광주 안의 타자 △요리와 이야기 등 6개 랩에 4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제 연구활동을 함께 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대강당에서 창의예술교육지원사업 성과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지난해 창의예술교육을 위한 자문회의부터 주제 찾기 워크숍, 연구진 구성 워크숍을 비롯, 6개 랩별로 진행한 연구 및 예술실험의 모든 과정을 전시와 발표 등을 통해 공유하고, 올해 2차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의 개발·확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지난해 진행한 ‘예술로’ 관련 활동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 전남문화재단, ‘예술로 지역사업’ 공모 선정

### 지역 예술인에 활동비 지원 10개 기관·50명 예술인 규모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예술인과지역지원-예술로 지역사업(예술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문화재단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4년 연속 지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예술로’는 지역 예술인의 직업 역량과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전남에서 29개 기업·기관과 140여 명의 예술인이 ‘예술로’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다

양성, 귀농귀촌,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해 ‘예술로’는 10개 기업·기관과 예술인 50명 참여 규모로 진행되며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 참여 가능하다. 선정될 경우 인당 월별 120만원 또는 14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기관과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예술로 사업 공고는 3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http://www.jncf.or.kr>) 사업공모를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 광주 예술여행 콘텐츠·상품 공모전

### 광주관광재단, 24일까지 접수

광주관광재단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광주 예술여행 콘텐츠 및 상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비엔날레 도시 광주의 매력을 상품화하고 개별여행객을 위한 광주 예술여행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사업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예술분야 또는 예술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분야다. 1차·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당선작은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록 △

OTA 플랫폼 콘텐츠 수수료 △홍보물 제작지원 △예술여행 기획전(쿠폰할인) 등을 지원받는다.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광주관광재단 이메일([arttour@gjto.or.kr](mailto:arttour@gjto.or.kr))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서류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제14회 비엔날레, 제13회 디자인비엔날레 등 다양한 예술관광 자원을 연계한 예술여행 콘텐츠를 확보하고 관광객에 다양한 예술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www.gjto.or.kr](http://www.gj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비건 빵과 함께하는 ‘로즈타임’

### ‘빵과장미’ 매달 시민 모임 18일 첫 만남… 영화 상영회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비건 베이커리 ‘빵과장미’가 2월부터 매달 다양한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 ‘로즈타임’을 진행한다.

로즈타임의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는 18일 오후 3시 빵과장미 매장 뒤편에 자리한 ‘영화의 집’에서 ‘미디어트 사회적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수료작 상영회’를 연다.

미디어트 사회적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은 시민들이 모여 다큐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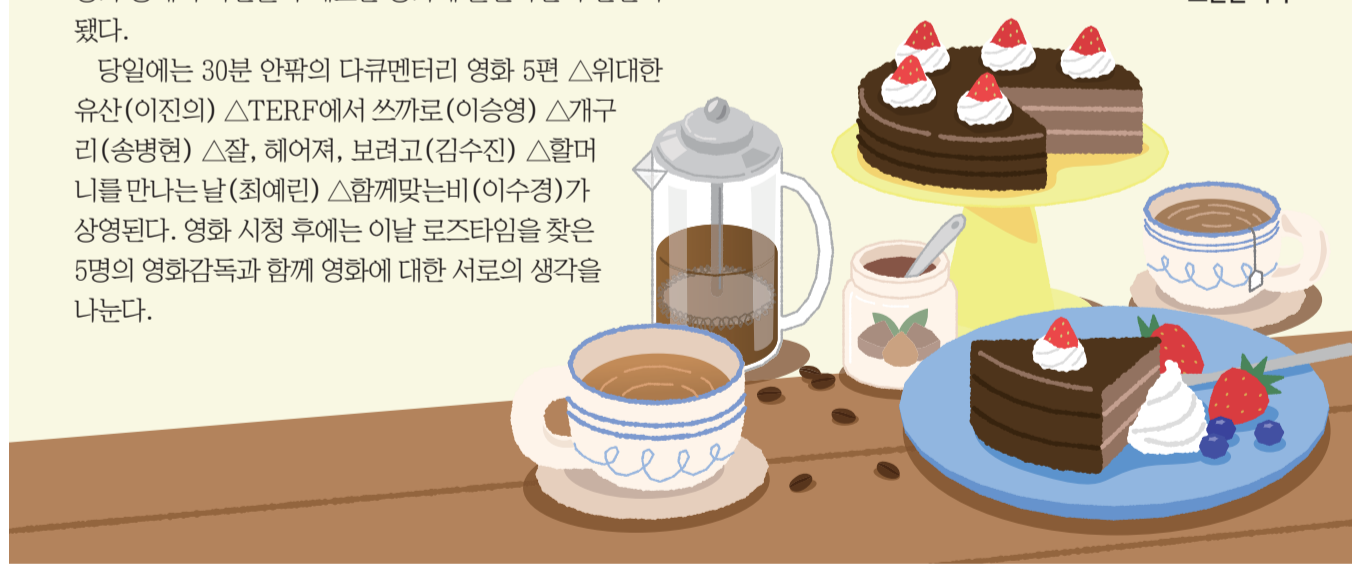
빵과장미의 서수민 대표가 지난해 워크숍에서 제작된 영화 중에서 자연을 주제로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인연이 됐다.

당일에는 30분 안팎의 다큐멘터리 영화 5편 △위대한 유산(이진희) △TERF에서 쓰까로(이승영) △개구리(송병현) △잘, 헤어져, 보려고(김수진) △할머니를 만나는 날(최예린) △함께맞는비(이수경)가 상영된다. 영화 시청 후에는 이날 로즈타임을 찾은 5명의 영화감독과 함께 영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이날 상영되는 영화 모두 로즈타임에서 첫 공개 된다. 로즈타임 참여 문의는 전화(062-945-6594)로 하면 된다.

‘빵과장미’ 관계자는 “비건을 지향하는 베이커리 빵과장미가 ‘건강한 빵을 먹는 것’ 말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하나로 로즈타임을 기획했다”며 “3월에는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한 로즈타임을 기획하고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빵과장미’는 1908년 여성 참정권 시위 구호인 ‘모든 이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도’에서 따온 것이다. 베이커리 ‘빵과장미’는 동물성 원료 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는 등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 조각가 위재환 라이브 드로잉전… 22일 동구인문학당서

### 몽상가 연작 전시 설명

동구인문학당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문관에서 ‘위재환 라이브 드로잉전’을 연다.

드로잉전에 참여하면 동구인문학당 마당에 전시된 위재환 조각가의 작품 ‘몽상가 연작’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위재환 조각가가 즉흥적으로 그려주는 ‘라이브 드로잉’ 시간도 즐길 수 있다.

드로잉전은 오는 6월까지 동구인문학당에서 진행되는 ‘추억의 소년소녀 도서전’의 주제 전시 일환으로 마련됐다. ‘추

억의 소년소녀 도서전’에 위재환 조각가가 초대작가로 선정돼 전시 기간 동구인문학당 마당에서 위재환 조각가의 작품 ‘몽상가 연작’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말(馬) 형상의 등에 올라탄 몽상가와 실물 크기의 코뿔소, 동물의 등에 올라타고 질주하는 사내 등 총 3점이다.

위재환 조각가의 드로잉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것이 특징으로 풍부하고 독창적인 환상 묘사가 인상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조선대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한 위 작가는 △2022년 피비우스 피 △2022년 몽상가: 서투른여행자 △2021년 시각여행자 △2019년 몽상가: 눈먼자들의 도시 △

2018년 몽상가: 기억의 스토리 등 15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단체전 300회에 참여했다.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조각회, 21세기정신조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드로잉전에 참여하고 싶다면 동구인문학당 블로그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ami90@korea.kr](mailto:ami9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20팀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062-608-2176)로 문의.

인문학당은 동구가 1954년 지어진 근대기옥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민문화공간으로 전시공간·강연장·다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선인 기자**